진실을 만나다 - 밀레
WWW.MILLET.CO.KR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광주 17/27℃ 목포 17/24℃ 여수 17/21℃

단기 4345년 (음력 4월 10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241호 1판 2012년 5월 30일 수요일

여수박람회 예측용역 엉터리

관람객 수·교통량 수요 모두 빗나가
초반 흥행 실패…환승주차장은 텅텅

여수세계박람회의 초반 흥행 부진과 운영 미숙은 잘못된 기본계획과 수요예측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목표 관람객 수를 과다 책정하고, 교통량 예측 등이 모두 어긋나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과다 수요예측, 마케팅 실패=조직위의 가장 큰 실수는 잘못된 수요조사로 개막 전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직위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기본계획(2008년 12월)과,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1차 관람객 수요조사(2010년 4월·이하 수요조사), 경희대학교가 실시한 2차(2011년 2월)와 3차(2012년 1월) 수요조사에 따라 관람객 수와 교통대책 등 박람회 운영 계획을 세웠다. 이들 수요조사에는 회당 9000만원~2억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총 박람회 관람객은 기본계획에서는 800만명으로 설정됐고, 1차 수요조사 954만명, 2차 1047만명, 3차 1082만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특정 주말에 36만명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고, 이에 따라 개막 첫 주말인 지난 12~13일과 이번 석가탄신일 연휴(26~28일)를 '특정일권'(4만원)으로 묶었다. 하지만 보통권보다 7000원가량 비싼 특정일권을 운영한 12~13일 관람객은 고작 6만명, 석가탄신일 연휴에도 관람객은 22만5000여명에 그치면서 초반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조직위는 입장료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면 관람객의 관람 의향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특정일권'을 운영, 대목 장사를 망쳤다.

◇엉터리 교통 분석, 환승주차장 '텅텅'=조직위가 내다봤던 관람객 교통수단은 승용차 61.8%, 버스 21%, 항공기 1.6%, 철도 15.5%, 여객선 0.9%였지만 실제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였다. 누적관람객 46만5187명(지난 23일 기준)의 교통 수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버스 61%, 승용차 23%, 철도 9%, 여객선 4%였다.

또 조직위는 하루 평균 2만800대의 승용차가 여수로 몰려오고 주말에는 7만4000대의 승용차가 몰릴 것으로 예측, 승용차를 6곳의 환승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있다. 하지만 개막(12일) 후 12일간 관람객이 타고 온 승용차는 고작 10만7179대로 조직위의 수요조사에 크게 못미쳤다.

또 6곳의 환승주차장(3만4000면·예산 148억원) 이용률은 28일 현재 7.6%에 그쳤고, 환승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잇는 셔틀버스(최대 794대 운영·예산 180억원)의 1회당 평균 승차인원도 13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조직위가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게 운영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광주에 '히딩크 드림필드' 개장 거스 히딩크 감독이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덕흥동에 건립된 '히딩크 드림필드 시각장애 축구 전용구장' 개장식에 참석해 세광학교 시각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6월2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전에서 4강을 확정지은 지 10년 만에 '히딩크 드림필드 전용구장'이 광주에 개장해 의미를 더했다. ▶관련기사 1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임기 시작…19대 국회 각오와 바람

"정권교체 앞장…당론 초월 서민국회로"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됐다.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과 시민단체·학계 관계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권교체와 서민경제 활성화, 보편적 복지 실현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 19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4면〉

광주일보가 29일, 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를 하루 앞두고 광주·전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기정·김동철·이용섭·임내현·황주홍 의원 등 5명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당파의 이익 대신 서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념 지향의 국회활동을 지양하고 치열한 민생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이 의원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황 의원은 "당론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약속을 지키고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3명의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김성곤 의원은 "신뢰받는 국회 만들어야 한다", 박주선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배기운 의원은 "약속을 실천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각각 지적했다. 또 같은 질문에 대해 박지원·이윤석·박혜자 의원 등 3명이 "정권 교체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가장 절실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장 우선시할 입법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와 관심 내용이 달라 제각각인 가운데 2명의 의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등 재정개혁 법안 마련하겠다", 주승용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각각 말했다.

이 질문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제정 무산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다시 약속했으며 이윤석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김승남 의원은 친환경농업의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하는 등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을 각각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2면에 계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한길 '이해찬 안방' 세종시·충북서 1위

민주 당대표 경선 13표차 접전

민주통합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대의원 지역 순회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경남과 제주에 이어 29일 세종·충북에서까지 승리하며 선두를 달리는 이해찬 후보를 13표 차이로 바짝 추격했다. 〈관련기사 5면〉

김 후보는 이날 청주 명암컨벤션센터에서 충북과 세종시 대의원들을 상대로 1인2표 방식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396명이 투표한 가운데 226표를 얻어 158표를 얻은 이해찬 후보를 68표 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당초 세종·충북에서는 충남이 고향이고 세종시 첫 국회의원 당선자인 이 후보의 압승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3위는 충북 오창이 본적인 손학규계 조정식 후보로 116표를 얻었다. 이어 유일 여성주자 추미애 후보(84표), 486계 우상호 후보(81표), 정세균계 강기정 후보(66표), 정동영계 이종걸 후보(45표), 원외 문용식 후보(16표)가 4~8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김 후보는 8번의 지역 경선에서 5번은 1등을 차지하고 이 후보에게는 6승2패로 앞섰지만, 누적 득표수에서는 1742표를 기록하며 대전·충남에서 몰표를 받은 이해찬 후보(총 1755표)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유지했다.

대의원대회 누적 합산에서 3위는 강기정 후보(1067표), 4위는 추미애 후보(1038표), 5위는 조정식 후보(798표)가 차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광신대학교
☎062)605-1112, 1063

평양성탈환도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기념식 |
2012. 6. 2(토) 15시
안동시 탈춤공원 야외 공연장

| 주요 프로그램 |
임진란 공신 및 의병행렬 퍼레이드 (14시- 안동 웅부공원 출발)
지상무예 및 검무, 공식 추모제, 기념식, 화합의 퍼포먼스

| 국제 학술대회 |
1차 대회 정치와 외교 '동아시아 국제전쟁, 임진란' 6. 29(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차 대회 사회와 문화 '전쟁의 혼란과 새로운 희망' 8. 25(토) 전남 담양 전남도립대학 대강당
3차 대회 경제와 군사 '전쟁사와 군사사의 새로운 모색' 10. 12(금) 부산 부산대학교 대강당
4차 대회 의미와 교훈 '임진란 연구의 현재와 미래' 12. 7(금) 대구 교육청 대강당

| 순회 특별기획전 |
• 안동전 : 6. 19(화) ~ 8.19(일) 한국국학진흥원 특별전시실
• 서울전 : 11.1(목) ~ 2013. 1. 31(목) 서울 전쟁기념관 전시실

| 사제사·단제사 봉행 |
• 일시 : 2012. 6 ~ 12월 • 장소 : 전국
• 내용 : 임진란 아홉 공신에 대한 사제사 및 단제사 봉행
– 서애 류성룡선생 사제사 봉행
6. 2(토) 오전 11시 하회마을 충효당

| 임진란 자료발간 사업 |
• 임진란 공신집 편찬·발간
• 임진란 연구총서 발간
• 임진란 고문서 자료집 조사·연구사업
• 임진란 7주갑 기념행사 백서 및 화보집 발간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 • 주관: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 협력주관: 每日新聞社 한국국학진흥원 전쟁기념관